

마을만들기의 사례와 시사점

견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김은희 사무국장



1. 강사 소개

김은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사무국장)

- ❖ 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
- ❖ 인하대 독문학과 졸
- ❖ 전) 사)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조직부장
(1994년- 2001년)
- ❖ 현) 사) 걷고싶은도시만들기 시민연대 (약칭 도시연대) 사무국장
(2002년 – 현재)

2. 학습목표 및 주제

❖ 마을만들기에 대한 소개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함

❖ 세부 주제 및 내용

1.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2. 주민참여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

3. 마을만들기 사례

- 주거지에서의 마을만들기

- 한국전쟁 이후 동네 재건과 마을만들기

- 마을공동체 형성과 해체

- 변화된 주거환경과 아파트 공동체

4. 마을만들기 사례 2

- 상업지에서의 마을만들기

- 인사동 작은가게 살리기

- 부평 문화의 거리

5. 마을만들기 사례 3

- 커뮤니티 디자인

6. 마을만들기 사례 4

- 정책, 제도화

7. 마을만들기에 대한 새로운 모색들

3.1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

“ 주민(시민,이용자)이 스스로 나서서 일상생활환경
(삶터, 일터, 쉼터)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개선해
나가는 주민 주도의 생활환경 개선 활동”

(정석/경원대학교 교수)

| 주민참여 (주도) 를 통한 | | |
|--------------------|-------------------------|-----------------|
| 마을삶터만들기 | 마을공동체만들기 | 사람만들기 |
| 골목. 동네 등 물리적 환경 | 주민약속, 협정, 주민조직, 행사 등 | 주민의식과 민주시민의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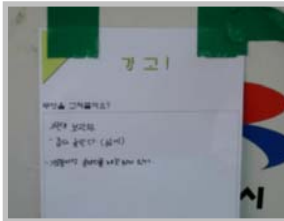
3.2 주민참여의 다양한 방법들

- ◆ 참여프로그램은 공개와 공론화를 위한 것이며 참여자체가 아니다.
- ◆ 대화와 토론, 협의와 합의의 일상성을 가져야 한다.
- ◆ 나의 참여와 너와의 연대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이영범저 / 경기대학교건축대학원)
- ◆ 당신이 뭔가 해달라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주민참여' (이영범저)

<Kj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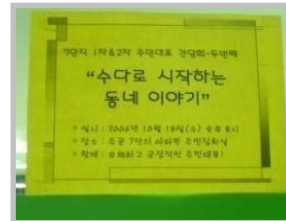
<선호도조사>



<디자인게임>



<일상적 소통>





3.3 마을만들기 사례 1 – 주거지에서의 마을만들기

1) 한국전쟁 이후 동네 재건과 마을만들기 – 동두천시 봉암리

- 한국전쟁으로 초토화된 마을의 중심시가지를 주민들이 협력하여 새롭게 재정비
- 마을 재건과정에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만들기 실천방법을 개발하였으며, 주민 스스로의 힘과 자원으로 다양한 공동사업 시행
(고리대금 근절을 위한 새마을금고 설립/ 안방문고에서 새마을 문고로 전환 / 봉암어린이집 및 모험놀이터 등)
- 조기 재정안정 및 자녀교육, 마을치안 유지에서 90년대 이후에는 건강과 관련된 공동사업 추진 및 장학회 등 결성

3.3 마을만들기 사례 1 – 주거지에서의 마을만들기

2) 마을공동체 형성과 해체

- 정주성이 있는 주거지 마을공동체
 - : 주민간의 일상적 다양한 관계 형성 (공동부업/ 동네 계모임 등)
 - : 외부공간에서의 활동 다양화 (놀이, 교류)
 - : 친밀한 관계속에서 서로에 대한 자발적 강제 가능
- 도시재개발로 인한 정주성 상실 및 공동체 해체
 - : 동대문구 용두동 꽃길골목가꾸기 (1985년 시작 / 2006년 재개발로 해체)
 - : 은평구 한양주택 (1978년 조성 / 2007년 뉴타운으로 해체)



3.3 마을만들기 사례 1 – 주거지에서의 마을만들기

3) 변화된 주거환경과 아파트 공동체

- 재개발 시행에 따른 아파트 거주 증가
- 부녀회 중심의 문화교실 및 문화행사, 축제 개최 (90년대 중반)
- 관리비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주민참여 증가
- 공동체 지향을 위한 공동공간 (체육시설, 공부방, 문화교실 등) 조성
: 관악현대아파트 (문화교실) / 둔촌주공단지 (마을축제) / 고양풍동성원아파트 (사이버공동체) / 김포 신명아파트 (관리비투명화, 민주적 주민조직) 등
- 경제적 계층의 동질성과 공동의 부대시설 이용 / 단지 관리를 위한 주민조직 / 문화육구 증대 등으로 활성화
- 단지 내부에 한정된다는 폐쇄성



3.4 마을만들기 사례 2 – 상업지에서의 마을만들기

1) 상업지에서의 마을만들기

- 대자본에 대한 상권 지키기 / 쇠락한 상권 활성화 / 오래된 상가 활성화 등
- 서울 인사동 거리 . 인천부평문화의 거리 : 민간주도 + 행정 및 전문가 지원
- 서울 노유거리 : 행정제안 + 민간 및 전문가 협력 (이후 상인주도)

2) 인사동 거리

- 종로 중심부의 1920년대부터 형성된 문화예술의 거리 (골동품, 고서적, 고미술 등)
- 상가 활성화를 위한 차없는 거리 시행 (1997년)
- 인사동 작은가게 살리기 운동 (1999년)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 및 문화지구 지정 (2001년)



3.4 마을만들기 사례 2 – 상업지에서의 마을만들기

3. 인천 부평구 부평 문화의 거리

- IMF 위기의식, 대형마트 및 상가 현대화에 대한 위기의식속에서 차없는 문화의 거리 조성을 통해 상권 활성화 모색 (1996년)
- 상인들 서명을 통해 차없는 문화의 거리 요구 – 구청의 반대 (노점상 문제로 인한 이견)
- 상인들의 노점상 재산세 조사를 통한 노점관리제 요구 (우리나라 최초의 노점관리제)
- 거리환경 변화에 대한 다양한 자구노력
 - : 상인들 6천만원 기부로 분수대 조성 , 시설물 담당 상인 선정 등 지속관리
- NGO 및 전문가 결합으로 옆거리 확대
 - : 도시연대, (사)문화도시연구소 지원을 통한 옆거리 확대
- 노점상, 점포상인이 함께 하는 상인조직 결성 , 매출증대, 전국재래시장상인연합회 구심

3.5. 마을만들기 사례 3 – 커뮤니티 디자인

1. 커뮤니티 디자인의 흐름

- 대구 삼덕동 담장허물기 및 벽화조성 (1997년 -)
- 광주 광역시 북구 마을만들기 사업 중 '마을살터가꾸기' (2000년 -)
- 도시연대 한평공원 만들기 (2002년 -)
- 도시연대 놀이터 리모델링 (2006년 -)

2. 커뮤니티 디자인 활성화 조건

- 마을만들기에 대해 공유하는 지원 전문가 풀 형성과 전문가들의 참여 디자인에 대한 관심 증가
- 시민단체들의 주민참여 과정 또는 결과물로서 외부공간에 대한 관심 급속히 확산
- 지자체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진행

* 행정의 영역인 외부공간을 시민사회 영역으로 인식

3.5. 마을만들기 사례 3 – 커뮤니티 디자인

1. 대구 삼덕동 벽화작업의 원칙

- 채색벽화가 없다 (재료는 동네에서 구입)
- 자연스러운 환경으로 존재한다
- 주인 및 마을사람과 협의를 갖는다
- 저예산으로 한다
- 작가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움직인다
- 생활속의 벽화는 오래가야 한다





3.5. 마을만들기 사례 4 – 정책 및 제도화

1. 마을만들기 지원을 위한 제도화

- 광주 광역시 북구 마을만들기 조례 (2004년)
-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조례제정 (2007년)
: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설립 (2008년 -)
-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싶은 마을만들기 조례제정 (2009년)
- 살고싶은 도시 청주만들기 협의체 지원조례 (2009년)

2. 주민참여 마을만들기와 정책반영

- 마을만들기형 지구단위계획 (서울시 / 2009년 / 4개 지역시범사업)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서울시 / 2009년 / 3개 지역사업사업)



3.4. 마을만들기에 대한 새로운 모색들

1. 대구 삼덕동 (1997년 - 현재) : 커뮤니티 비즈니스

- 가출청소년 쉼터 입지 후 주민 동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 벽화그리기 및 조성공간 (담장허문 마당/ 골목벽화)에 인형극 등 문화공연
- 원룸반대운동 및 빛살미술관, 마고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재개발 반대운동과 인형마임축제 : 재개발 추진위 와해
- 커뮤니티 비즈니스 모색

2. 영구임대아파트 마을만들기

- 저소득계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마을만들기 진행
- 엔젤프로젝트 (대전시) : 외부환경 개선, 마을신문, 지역복지 등
- 빈점포 리모델링, 한평공원만들기, 일상문화프로그램, social max 등

4. 학습정리

1. 마을만들기는 아무 것도 없는 백지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재개발사업'이 아니다. 그 장소의 역사와 특성,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장소, 장소와 장소, 현세대와 미래세대, 우리동네와 우리사회 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2. 주민참여는 '당사자 중심'의 합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민참여는 우리사회가 지향해나가야 할 시민가치, 생명가치 등을 고민하면서 이를 실현해나가기 위한 참여과정이다.

3. 마을만들기는 지역에 대해 열린 사고다.

좋은 마을은 내가 살고 있는 곳만 좋다고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고립된 섬이며, 폐쇄성을 낳는다.

마을만들기는 지역을 넘어선다. 마을만들기는 전체 사회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구축하려는 것이다. 농촌과 도시와의 연계, 우리 마을과 옆 마을과의 연계 등 서로 간의 연계와 소통을 의미한다.